

# 中央藥大 同門會報

2001. 겨울호 (제3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2001. 겨울호 (제3호)

CONTENTS

CONTENTS

시론 / 희망으로 거듭나는 2001년을... 3

신임 서울시 분회장 명단 · 4

동문회소식 / 동문회 회장단 및 약사회 임원진 회동 · 6  
동문회 활성화의 주역, 회장단 회의 활성화 · 6  
새해 첫 고문단 회의 개최 · 7  
신임 분회장 축하패 증정 · 7  
청룡회 · 8  
흑중회 · 9

지부별소식 / 충북지부 · 10  
종로지부 · 11

여동문회소식 / 인도주의 정신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12

동기별소식 / 5회 동기회 · 14  
7회 동기회 · 15

동기회동정 / 14회 동기회 · 16  
24회 동기회 · 17

별난동문 / 봉화군수 하려고 태어난 사람같다 · 18

만평 / 2001년을 열고..., 2000년을 닫고... 19

특별기고 /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본 의약분업 · 20

모교소식 · 21

회원동정 · 22

동문회 회비 및 기금 안내 · 24



# 희망으로 거듭나는 2001년을 ...

최선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되고,  
약사와 의사가 화합과 신뢰로 공존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오 희 영  
(9회, 부회장)

크나큰 기대와 희망속에 출발했던 2000년이 저물었다.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지난해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약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다시 올 수 없는 중요한 시점에 서 약사, 의사의 이기를 떠나 진정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도 없이 정부와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이끌려 다닌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회원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서 불신, 불안,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약사의 자부심, 장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도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현재로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닐 뿐더러 우리 후배 약사들이 설 땅과 약사의 존재이유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하여 마지막 남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나아가야 하겠다.

첫째, 의약분업 정책의 재검토와 분석으로 새로운 대응책을 세워야 하겠다.

둘째,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건강권을 지킬수 있도록 시민의 소

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겠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 몫 챙기기 보다는 공정한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넷째, 회원을 하늘같이 알고 주민과 회원의 뜻에 바탕한 정선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회원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겠다.

다섯째, 집행부의 일방적인 판단과 편의주의를 버려야 하겠다.

이제 새천년의 시작인 2001년도를 맞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아직 희망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최선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되고, 약사와 의사가 화합과 신뢰로 공존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절망의 2000년이 희망이 2001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2001년 1월



# 신임 서울시 분회장 명단

## Profile

Profile



**윤 주 섭** (8회, 은평구)

새해 첫 단추를 잘 끼워 전 약계가 일치단결 하여 분업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 윤리와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실이지만,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할 수 있는 정신, 나를 던져서라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조 찬 휘** (15회, 성북구)

IMF와 의약분업 등 약국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없지만, 화합과 단결의 기치아래 “환자에게 말 2배하기, 한약조제 2일 1건” 등의 「신바람 약국경영 운동」을 통한 동네약국 활성화로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투구하자.



**박 석 동** (15회, 관악구)

‘의에 죽고 참에 사는’ 모교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동문회 회무에 임하겠다. 회원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회무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것이다.



**신 상 직** (17회, 도봉·강북구)

반회 활성화에 힘쓰고 공정한 회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원활한 의료보험 조제 및 청구, 과도한 소득세 부과, 그리고 소득세 원천징수 등 의약분업 후의 산적한 문제점을 최대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약사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정 명 진** (18회, 서대문구)

약사회와 회원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힘차게 나아가자.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 회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난관을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믿는다.



**김 기 명** (18회, 서초구)

의약분업의 그림자에 소외되거나 불이익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가장 낮은 자세에서 회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과 같은 자세로, 21C 선진약국 모델 정착을 위한 유능한 인재의 발굴, 그리고 의사회 등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회원 권익신장에 앞장서겠다.



**양 만 기** (18회, 광진구)

회원들의 정서가 반영되지 않는 회무는 한계가 있다. 겸허하되, 그러나 단호한 자세로 회무를 이끌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회원들의 애정어린 질책을 회무의 원활유로 삼고자 한다.



**이 호 선** (20회, 금천구)

영원한 중앙인의 긍지를 잃지 않을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의약분업의 기틀을 정립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회원들의 현실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 모든 현안을 헤쳐나가는 추진력임을 이해하자.



**박 상 룡** (22회, 중랑구)

회원들이 편안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약사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밀어주는 약사회, 회원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 해소가 기본이 되는 약사회, 회장의 역할은 그 중간 교의 역할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김 영 식** (23회, 성동구)

맹세코 약권 수호를 위해, 그리고 회원들의 진정한 권익 신장을 위해 무엇보다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하지 않는 눈높이 회무 정착에 모든 회세를 집중해 나가겠다. 준비하고 도전하는 회원만이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



**진 희 익** (26회, 송파구)

중앙인의 긍지를 가지고 약사회 발전과 동문회 위상 제고를 위해 분투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땀 것을 약속한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젊음의 패기로 용기를 낼 것이다. 중대 약대 화이팅!





# 동문회 회장단 및 약사회 임원진 회동

지난 200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30일 동문회 회장단  
및 약사회 임원진이 회동하여  
회장단의 한 해를 평가하고,  
2001년 새해를 맞아  
동문회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 동문회 활성화의 주역, 회장단 회의 활성화

이번 회기에도 정례적으로 회장단 회의가 열려  
현안문제 및 동문회 발전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동문회 활성화의  
기본이 되고 있다.

▼ 10월 21일 3차 회장단 회의



▼ 11월 25일 4차 회장단 회의



▼ 12월 23일 5차 회장단 회의





## 새해 첫 고문단 회의 개최



새해 첫 고문단 회의가 1월 4일 동문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동문회와 관련된 당면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선배들의 오랜 경륜으로 언제나 든든하다.

〈참석자〉

유영후 회장, 김기홍, 김순일, 오세형 최종목, 김채윤, 김명섭, 임완호, 이규진, 서국진 동문

## 신임 분회장 축하패 증정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약사회 분회장으로 새로 당선된 11명의 동문들에 대한 축하패 증정식을 가졌다.

열린 자세로 회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동문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의를 다진

시간이 되었다.







## 동문회 단합의 홀인원을 기대하며



**김 현 용**  
(4회, 청룡회장)

청룡회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모임으로 1983년도 발기인으로 김기홍(1회), 이기상(3회), 김재승(4회), 최윤종(4회), 김채운(5회), 김명기(6회), 임성기(6회), 강인석(7회), 문장운(7회), 유영후(7회), 초대회장에 이기상 회장님과 유영후 총무가 맡아 발족하였다.

약학대학 골프모임으로는 우리 대학이 처음 발족시켰고 3개월후 서울회(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생기고 또 3개월후 대성회(성균관대학 약학대학 동문회)가 발족이 되었으며, 3개 대학이 골프모임이 생긴 이듬해 1984년에 보건신보 김찬호 사장의 제안으로 3개 대학이 처음으로 관악골프장에서 대항전을 갖게 되었다.

각 대학이 선수 8명을 엄선, 1회 대회에서 서울회가 우승, 청룡회가 준우승, 대성회가 3등을 하였고, 2회 대회에서는 청룡회가 우승, 서울회가 준우승, 대성회가 3등을 하였다.



그 후 8회까지 이어져 갔으나 나중에는 조선대, 충북대, 경희대, 여자대학까지 7개 대학이 참여한 적도 있었다. 또한 동문회 홈 커밍데이 체육대회때에도 축구, 테니스, 탁구, 바둑대회에 이어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동문이 모여 선후배간 동기간 지역간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초대 회장 이기상, 2대회장 최윤종, 3대회장 김채운, 4대회장 임완호, 5대회장 도상학, 6대회장 김영일로 현재에는 김현용(4회)

회장, 유영후, 임상묵 부회장, 조의환 총무, 윤대봉 경기간사가 수고를 하시고, 이번에 동문회에 금일봉을 기증, 최신형 컴퓨터를 마련하여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에 동문회에  
금일봉을 기증, 최신형 컴퓨터를  
마련하여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주었다





## 동문회 활성화에 앞장서는 위원회로 재탄생을 약속하며



**이 대 운**  
(10회, 흑중회장)

병원약사위원회로의 탄생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앞으로 동문회의 활성화에  
앞장 서는 위원회로 성장하겠습니다

을 한해는 새천년의 기대가 컸기에  
그러했는지, 막달인 12월에 임하여 돌  
아볼 때 이룬 보람보다는 너무 힘든  
한 해였다 하겠습니다.

기대를 걸고 준비한 의약분업이 시  
작부터 과행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  
면서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계속되  
었고, 그런 가운데 금년은 약사국가고  
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데다 개국  
가의 준비과정에 병원약국 경력약사  
들의 스카웃 열기로 병원약국은 약사  
부족현상으로 약국장들의 피로는 갈  
수록 쌓이는 가장 어렵고 험난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면서 생각  
도 않았던 1개월간의 계도기간 중엔  
1개월에서 6개월분까지 대량 처방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역사이었  
다 아니할 수 없었고 약국장 께말을  
뒤집어 보기도 하였답니다.

이 와중에 군산의료원의 이종수 선

배님은 환자가 줄어서 정년퇴임을 하  
셨고 이 과정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  
아 열심히 본연의 임무에 임하고 있  
는 흑중회 회원님들께 노고를 치하하  
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면 2000년을 통하여 유영  
후 회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전례없이  
병원약사에 관심을 크게 두시어 흑중  
회 모임에 참석하시고 10월에는 동문  
회 조직에 병원약사위원회를 정식 지  
부로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우선 흑중  
회 멤버가 주축이 되고 전국의 약국  
장을 1차 회원대상으로 점차 전 병원  
약사를 대상으로 병원약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잠정 흑중회장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보람인지 큰  
기쁨으로 여기며 앞으로 동문회의 활  
성화에 앞장 서는 위원회로 성장하겠  
습니다.







## 동문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오 규 진**  
(16회, 충북지부장)

대망의 새천년 첫해인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에 계신 선후배 동문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지 않은 숫자의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선 충북의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경 충북대학 전임강사로 취임하셨던 오유진(1회) 동문께서 72년 충북대 교수로 승진하시면서 청주 중앙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초대회장

에 취임하시고, 양계창(11회)동문을 총무로 선임하여 동문회가 출범했습니다.

그 후 지민식(3회/작고) 동문을 거쳐 75년 3대 회장에 한성순(2회)동문께서 취임하시면서 대내외에 중앙을 알리고 동문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남다른 정열을 쏟아 주셨습니다.

특히 충북대 교수로 계시면서 충북대보다도 중앙대에 너무 열중하시는 바람에 항의를 받기도 했으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충북전역을 방문하시면서 동문제약사 특매를 실시하는가 하면 중대 제자나 동문 혼사시 주례를 서주시는 등 화합단결에 앞장서시고 계십니다.

81년 4대 회장에 이영은(7회)동문이, 84년 5대 회장에 함영진(7회) 동문이 회장을 맡으면서 내실있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86년 6대 회장에는 본부동문회

총무였던 전승국(7회)동문이 고향으로 내려오시면서 10년간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전회장은 충북을 3개권으로 묶어 부회장을 선임 지역

관리를 활성화시키고, 연 1회씩 하기 야영대회를 실시하여 친목과 우의를 다졌으며, 각종 애경사에 전원참석을 권장하여 애사시에는 조기와 조화(3단)를 계양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대학입학 자녀에게는 축하패를 증정하여 축하를 하는가 하면 회갑을 맞는 동문을 위하여 장수의 상징인 거북상(금 1량)을 증정하는데 지난해까지 8명의 동문께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97년 7대 한병우(6회)동문께서 취임하면서 IMF 파동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애정어린 마음으로 동문화합에 힘써 오셨습니다. 2000년 12월 본인이 회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세가 확장됨에 따라 약사회에서도 중앙대를 높게 평가하여 꼭 회무에 참여토록 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도 도약사회 총회부의장 1석과 도약사회 부회장 1석은 중앙대 뒤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회부의장에는 양무웅(9회) 동문이, 부회장에는 이영은(7회), 윤혁기(5회), 양계창(11회), 최승기







## 후巳年 새해에 동문들의 건승을 빕니다



전 상 훈  
(17회, 종로지부)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우리의 약계의 큰 흐름인 분업을 맞이한 뜻 있는 해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가슴을 펴고 일해야겠습니다.

종로지부는 3회 오세형 선배를 중심으로 초기의 입지를 다지는 지부가 형성되었으며, 그후 임완호 선배께서 완전한 기틀을 다진 후 여름에는 야유회와 가을에는 축구를 하며 동문들과의 우애와 결속을 다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밑거름이 되어 처음으로 종로구 약사회장에 오희영,

윤수근 동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구대항 축구대회에서 종로지부가 우승하여 지부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결속에 가속도가 붙어 갔습니다.

약사회에서도 앞서가는 행사로 자리매김한 소년소녀 가장돕기 행사며 무료투약 등의 봉사활동에서도 저희 동문회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일함에 선배와 후배가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어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 근래들어 회원들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약국 1번지 종로지부의 명예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올 한해도 동문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10페이지에 이어서>

(13회), 류효성(14회) 순으로 회무를 맡아 왔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제천지역은 홍성호(5회), 김학원(9회) 동문을 주축으로 시모임을 갖고 있으며, 충주지역은 이원재를 중심으로한 모임이, 영동지역은 임갑환(5회), 조복휘(5회), 류효성(14회) 현

분회장을 중심으로, 청주지역은 김의중(1회), 한성순(2회), 전승규(7회), 이영은(7회), 양계창(11회)을 중심으로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충북 도약사회는 490여 약사회원 중 우리동문이 고작 33명에 불과한 취약지구지만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중앙대학교의 창

학이념으로 굳게 뭉쳐 선배님들이 쌓아 놓으신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견을 수렴하여 모범지부로 부상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도주의 정신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 제3회 유재라 봉사상 수상자 김 정 희 동문(12회)

희망속에 맞이했던 새천년의 한해가 저물어 간다. 지구촌의 1/4 면적, 55개국, 6억인구, 800여개 부족이 살고 있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

뒤늦게 뜻한바 있어 대학에서 나와 아프리카에서 생활한 지난 5년,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1996년 3월 처음으로 남아공 프레토리아 북부 작은 우체국

앞에서 흑인지도자와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다섯시간이 넘도록 길에서 기다리다 헛탕치고 왔던 일, 한국에서 가지고 간 작은 간판을 달아놓고 기쁨도 잠깐,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하루도 채 안 지나서 간판이 사라졌고, 준비한 연장류 전기톱과 그라인더 등이 없어지나 싶더니 구두, 운동화, 장화, 비누, 치약, 심지어 먹고 남은 음식까지 밤사이 깨끗이 비워놓은 밤손님들. 이젠 그들도 다 우리의 다정한 이웃이 되었다.

1999년 지난해는 그동안 의약품 지원 등으로 인연 있던 남아공의 인접국가 스와지랜드왕국 까풍아 왕실 측의 배려로 해발 1,100m의 산중턱에 대지 4,600평을 제공받아 보급자리를 만들었고, 비영리복지법인 "Future for African Children"(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모임)을 설립하여 그곳에 유치원을 짓고 보건진료소도 문을 열어 이제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지



역주민들과 더불어 한마을에서 사이 좋게 살고 있다.

시간관념이라든가 선악의 판단, 예의염치를 모르며, 수 백년간 유럽 열강들의 식민통치를 받고 살아온 그들.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즈음 우린 그동안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 이젠 웃으며 우리도 쓸개주머니 하나쯤 빼놓고 그들의 생각과 눈높이를 맞추고 가까이서 생활하려고 애쓰고 있다.

늘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은 옷은 너무 낡아 속살이 다 보여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 3%를 웃도는 아프리카. 영양부족으로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60%를 넘고 있으며, 무절제한 성생활로 AIDS환자가 많고 최근에는 어린이들에게서도 자주보는 에이즈문제는 우리 모두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모두 물이 제일 귀하다. 먼 강물에서 물을 길어오거나 받아 놓은 누런 빗물을 식수로 이용한다. 그러기에 씻고 빨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다 몇 달 걸려 지하수 개발에 겨우 성공했다. 물량이 많지는 않

지만 가까운 이웃 주민과 나누어 먹을 수 있고 가끔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이발도 해주는 등 그들이 필요한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보람이었다.

처음에는 깜마르고 거친 피부의 어린이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급식도 받고 자유롭게 뛰노는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대견스럽기만하다. 위생과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머리와 몸에 부스럼이 많이 있고, 갑자기 화상을 입은 아이를 업고 달려온 엄마. 귀에서 농이 흐르는 아이, 응급환자들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난 생처음으로 구충제를 약을 먹었다는 주민들은 너무나 고마워하며 Siabonga Korea(한국에 감사하다는 뜻)를 함께 노래 부르기도 한다.

지난 1월 유아원 문을 열면서 100여명의 어린이가 몰려 왔고 해만 뜨면 몰려와 목과 어깨에 매달리며 까





만 얼굴에 큰 눈동자와 하얀이를 드러내며 함박 웃음을 웃고 인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천사처럼 아름답기만 하다. 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잘 자라서 사회의 일원으로 능력있는 성인이 되어 일할 수 있을 때 아프리카는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본다.

그들도 풀도 베고 거름을 만들어 밭을 일구었고 한국서 가지고 간 씨앗으로 열무, 상추, 깻잎, 감자 등을 심어 식탁을 풍요롭게 하며 이웃과도 나누어 먹는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좀 떨어진 쿠보타의 농장 할아버지는 바나나를 가끔씩 상자로 갖다 주셔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등 너무나 순박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다.

또 병아리도 기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와 오리랑 개도 기르고 나날이 우리 가족은 늘어가고 있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위해 헌옷, 생활용품, 문구류 등의 바자회를 열기 전날 밤 집앞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지새며 차례를 기다리



1. 2000. 9. 19. 스와지랜드 국왕이(중양) 김정희 약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운영하는 육아원을 방문 기념 촬영
2. 2000. 9. 19. 스와지랜드 유아원생들이 한국에 감사하라는 합창을 하고 있음.
3. 유아원 어린이들이 민속춤을 추고 있다.
4. 스와지랜드 유아원 전경, 태극기와 스와지랜드 국가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고 성황리에 바자회를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재미있는 일은 일부 다처제의 풍습속에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처녀집에 소를 주어야만 혼인이 이루어지며, 보통 한 집에 서너명 또는 대여섯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사람도 있다. 이곳에서는 부의 척도가 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나로 평가된다.

지난 9월 19일에는 스와질랜드 국왕 MSWATIⅢ가 비바람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상과 교육부장관을 대동하여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우리기관 유아원과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였고 큰 관심을 가지며 감사의 뜻을 표하여 즉석에서 "ENGCONGWANENI" (최고, 정상 의 의미)라는 이름을 하사해 주셨고 제막식을 갖는 영광스런 시간도 있었다.

그동안 국내 IMF의 경제난국 속에 어려움도 많았으나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사랑속에 이 활동이 계속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내일의 꿈과 희망을 가져본다.

특히 동아제약, 제일제당, 원광제약, 유한양행 등의 의약품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01년 새해에는 지구촌 마을에 평화와 행복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화려한 인맥의 양산지 5회 동기회

금년 졸업생인 45회가 교문을 나서면 우리 동문회의 역사가 어언 반백년에 이르게 된다. 해방이후 사학의 선봉에 나서서 약사사회를 이끌어온 우리 동문중 뭐니뭐니해도 5회 동기회 만큼 화려한 동기회를 찾아볼 수 없다.

5회는 1957년 입학해서 4학년때 4.19 혁명을 맞았고 이어 사회에 첫발을 디딘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겪어 사회초년부터 거센 세파를 몸으로 받아온 동기회다.

그래서 그런지 5회에 모진 풍파를 이기고 우뚝선 동문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동문 최초로 서울시 약사회장,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하고 국회에 진출하여 3선을 이룬 김명섭



김 상 오  
(5회, 동기회장)

동문 외에 동대문구 약사회장 및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상오 동문, 관악구 약사회장을 지낸 권중욱 동문, 경기도 약사회장을 지낸 이송화 동문, 성북구 약사회장을 역임한 오상오 동문, 용산구 약사회

장을 역임한 박영규 동문 등 약사회에 헌신한 동문들이 많다.

제약업계에 진출한 동문으로는 구주제약을 경영하고 있는 김명섭 동문을 위시하여 일동제약을 경영해온 윤원영, 이명환 동문이 있고, 삼진제약을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게한 김영배 동문, 한영제약의 대표인 김주원 동문이 있다.

동문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온 동문으로는 약대총동문회 11대 회장을 역임한 김재운 동문과 여자동문회 창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장서온 박명자 동문이 있고 모교교수로 봉직하다 원광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신화우동문, 그리고 각각 지부에서 존경받는 선배로 이어온 정훈교(중구), 조취제 동문(중구), 이해석 동문(구로, 금천)이 있다.

그외에도 원자력병원 약국장을 오래했던 김영훈 동문(현 안양극장 경영)을 위시해 전국각지에서 중앙약대 5회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5회 동기회는 금년에는 졸업 40주년을 맞게 된다.

벌써부터 금년 4월경에 있게 될 졸업 40주년 행사를 위하여 현 김상오 동기회장을 위시하여 뜻있는 동기들이 2001년에 맞게되는 행사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아름답다.

5회는 1957년 입학해서 4학년때 4.19 혁명을 맞았고 이어 사회에 첫발을 디딘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겪어 사회 초년부터 거센 세파를 몸으로 받아온 동기회다.







## 약업환경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할수 있도록 합심하여 노력

7회동기회는 59년 짧은 패기와 꿈을 안고 명수대를 찾은 360명의 동기생으로 출발하여 어언 40여년을 지나 이순의 나이로 동문회의 중심 자리로 와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전통으로 전국 최고의 경쟁률로 명문 사학의 자부심과 인기 높던 약학이 40여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많은 변화의 물결속에 명암이 교차되는 오늘을 맞았다.

5,000여 동문의 중추적인 활동으로 외적으로는 한국 약업이 많이 발전하였으나 내실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으며, 우리 모교도 타 대학의 발전에 비하여 발전과 내실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우며, 우리가 몸 담은 약계도 열망을 갖고 모였던 그 때와 비교할 때 약사라는 금지와 자부심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있음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우리 5,000여 동문들은 변함없는 모교 사랑과 한국 약계의 중심에 서서 앞으로의 난제를 극복하고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7회 동기들도 유영후 회장의 임기 동안 동문회 단합과 모교의 지원과 약업환경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있도록 합심하여 노력 할 것을 다짐하여 본다.

전국 각지 각자가 선 자리에서 국민건강을 돌보며 지역사회의 지



정재일  
(7회, 동기회장)

도자로서 누구 한사람 빠지는 동문이 없겠으나 몇몇 동문을 소개하면 약사회와 동문회에서 경륜을 쌓아 현 총동문회를 이끌고 있는 유영후, 이기안과 약사회에서 일익을 담당 하였던 노정익, 김영일, 김원지, 송

주현, 박명신, 이양현, 용영일과 제약에는 새한제약을 경영하는 이용원, 유유산업의 강승안, 한영제약의 최용선, 신완균이 동기이며 알파제약을 경영하던 이양현은 제약을 그만두고 알파항공에 전념하고 있다. 관계에는 장영수가 식약청의 주무국장을 거쳐 희귀의약품센터 소장으로 이홍수, 정기성이 약무행정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다.

또한 학구에도 열의가 높아 박사 학위를 득한 분도 강승안, 이대섭, 이희민, 박명신, 장영수, 신완균, 여자동기들도 박숙자를 중심으로 우정을 나누고 있으며 이번 유운자 동문의 부군인 박명수 교수가 모교의 총장에 선출되어 내조의 빛을

5,000여 동문들은 변함없는 모교 사랑과 한국 약계의 중심에 서서 앞으로의 난제를 극복하고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 14회 졸업30주년기념 동문회개최



**이 규 식**  
(14회, 동기회장)

지난해 11월 18일 강남터미널 센트럴시티 5층 메이플룸에서 약대 14회(66년 입학) 졸업 30주년 기념 동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동문회에는 이도익학장님을 비롯한 10여명의 옛 스승님과 원로 교수님이 참석하셨으며 김창종 교수님의 “의약분업과 약학교육”이란 주제의 특별강연도 있었다.

이 행사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6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고, 멀리 미국에서도 달려온 동문도 있었다. 꿈꿨던 청년시절에서 강산이 세 번이

나 바뀔정도의 세월을 넘어 어느덧 50대 중반의 반백이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지난 학창시절의 옛추억을 되새기면서 시간의 흐름을 못내 아쉬워했다. 동문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장학기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김명웅 이사에게 동문회 공로패 증정(장학기금 천만원 기증)



<15페이지에 이어서>

더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유상근이 경북도의원으로, 정현자가 김제금성여자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권장원이 경북 JC 회장을 거쳐 도매업에 전념하고 있다.

해외에도 많은 동기들이 진출하여 있으나 최근 미국 보건원에 근무하는 이희민이 모교에 고가의 실

습기자재를 희사하고, 산호세의 김옥남이 동창회기금으로 500만원을 희사하는 등 모교와 동문회에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하고 있어 자랑스럽고 흐뭇한 일이다.

또한 졸업 40주년을 앞두고 지난 30주년 행사 때에는 가족앨범과 함께 동문회에 일금 1,000만원을 희사

함으로써 동문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제 우리 7회 동기도 60을 넘어 건강에 유의하면서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동문수학의 끈끈한 정을 만끽하면서 오래도록 함께 하기를 간구하면서 동기들의 건승을 빌어본다.



## 24회졸업 20주년 행사 “성년의 밤”



김 승 재  
(24회, 동기회장)

“ 모든 동기들이 약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더욱더 튼튼해 질 수 있도록 우리 동기생들의 역할이 더 한층 필요한 때라 생각이 된다.”

지난 12월 16일 학교 교수식당에서 졸업 20주년 행사인 “성년의 밤”을 옛 은사님들과 현직 교수님, 유영후 동문회장님, 강옥희 여동문회장님을 모시고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의약분업이라는 약업계의 큰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40여 동기생들이 모여 오랜만에 지난 20년을 회고하면서 새롭게 희망찬 미래의 20년에 대해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선물을 협찬해주신 약국체인 (주)은누리건강, 생식전문의 팜리, 링크오일의 Jangs&Pharms, 팜텍홀딩스, 일진제약, 대웅제약, 계놈엔 메디신 등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동기회는 4년전 입학 20주년 행사인 “은사의 밤”을 계기로 결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함한성, 윤규형 동기

가 어려운 가운데도 회장, 총무를 맡아 열심히 일을 해 왔고 현재는 총무에는 이규삼, 회장에는 김승재 동기가 이끌어가고 있다.

120명이 졸업한 동기생들의 근황을 살펴보면, 학계에는 최영욱 동기가 모교에서 약제학교수로 재직중이고, 약업계에는 정종근(대웅제약 상무이사), 홍용기(일진제약이사, 공장장), 조진성(종근당 이사, 공장장), 갈원일(제약협회 국장), 이광섭(적십자병원 약제부장), 김동섭(보건원 과장), 윤규형(계놈엔 메디신 대표이사), 함한성(Internet business 구상중) 등 다수의 동기생들이 활약중이며, 그의 동기생들은 의약분업의 틈바구니속에서 가장 바쁜 임상약사로서 약국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 개국 약사를 위해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동기들은 임상약학 김기환, 약국경영 양성철, 동의사상의학 윤규형, 대체요법 김승재 등이 있다.



약사회장으로는 강화의 권영직, 창원시 인병권, 안산시 김승재 동기들이 어려운 시기에 약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분회장 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현재 모든 동기들이 약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더욱더 튼튼해 질 수 있도록 우리 동기생들의 역할이 더 한층 필요한 때라 생각이 된다.





**엄태항**  
(14회, 봉화군수)

지난해 12월 강남고속터미널에 있는 센트럴시티에서 약대졸업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1970년 졸업했으니가 30년이 되는 해다. 10년 이상 약사라는 전문직을 떠나 고향에서 외도(?)를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못 만났던 남, 여 동기생들도 만나 보고 싶고 당시 교수님들도 모신다고 하여 만나서 제치고 달려갔다.

어느 제약회사인지 처음 들어보는 회사의 신제품 소개와 교육이 있었고, 학교 다닐 때 호랑이처럼 무서웠던 노교수님들도 뵈었고, 이름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옛 급우들도 만났다. 반가운 안부인사 뒤엔 화제가 대부분 의약분업과 약국경영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모아진다. 나도 약사라는 사실을 오랜만에 느껴볼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 고향은 봉화, 경상북도 최북단 태백산맥 산골이다. 넓이는 서울의 2배이지만 산이 88%이고, 인구는 5만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까지 고향에서 졸업하고 중대약대를 들어갔는데, 급우들 중에 봉화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고향이나 출신

## 봉화군수 하려고 태어난 사람같다

고교를 묻는 친구들에게 봉화 얘기를 했더니 날 부를 때 '봉화야'하고 부르는 친구들이 많았다. 내 이름보다 '엄봉화'라는 별명을 본명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 정도였다.

그때부터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것 같다.

군 제대하고 서울에서 잠시 개업했다가 결혼하고 봉화로 내려와서 약국을 개업했는데 날로 번창했고, 물려받은 토지도 신개발지로서 버스터미널과 시장이 옮겨와 재산이 꽤 늘어나게 되었다.

개업한지 1년도 안되어 약사회 군부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회원들과 함께 매년 두세 차례 오지 무약촌을 찾아가서 무료투약사업을 벌였다. 약국이 자리잡히자 약사인 나에게 약국일을 맡기고 JC, 조기축구회, 생활체육회 등 청년 체육단체 회장을 맡아서 지

역봉사활동에 정열을 바쳤다. 졸업한지 18년 만에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에 다시 입학하여 지역사회개발학 전공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봉화군 번영회장을 맡아 나후된 봉화의 지역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 봉화군이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경영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공공청사 부지 조성 직영추진으로 121억의 예산절감을 인정받아 경영수익사업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변화와 도전 앞서가는 봉화”라는 군정구호로  
21C 더욱 발전할 봉화군을 동문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뛰어들었다. 이러한 나의 사회활동과 참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지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경상북도 의회의원에 당선되었고, '95, '98년 자치단체장선거에 연달아 당선되어 봉화군수로 재임하고 있다. 무소속 출마자가 당선되기는 봉화군 선거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 군수에 출마했을 때 '약사가 행정에 대해 뭘 안다고 군수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지금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몰라도 날더러 '봉화군수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방자치행정 중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위생환경 등 중요한 약사의 전문지식이 요긴하게 쓰이는 분야도 많다. 남녀노소 두루 많은 사람을 잘 알고, 골짜기 골짜기 마을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한약재생산, 한약재를 먹여키운 한약우, 키낮은 사과나무 보급육성 등으로 한국능률협회로부터 농업경영 혁신분야 지방자치 대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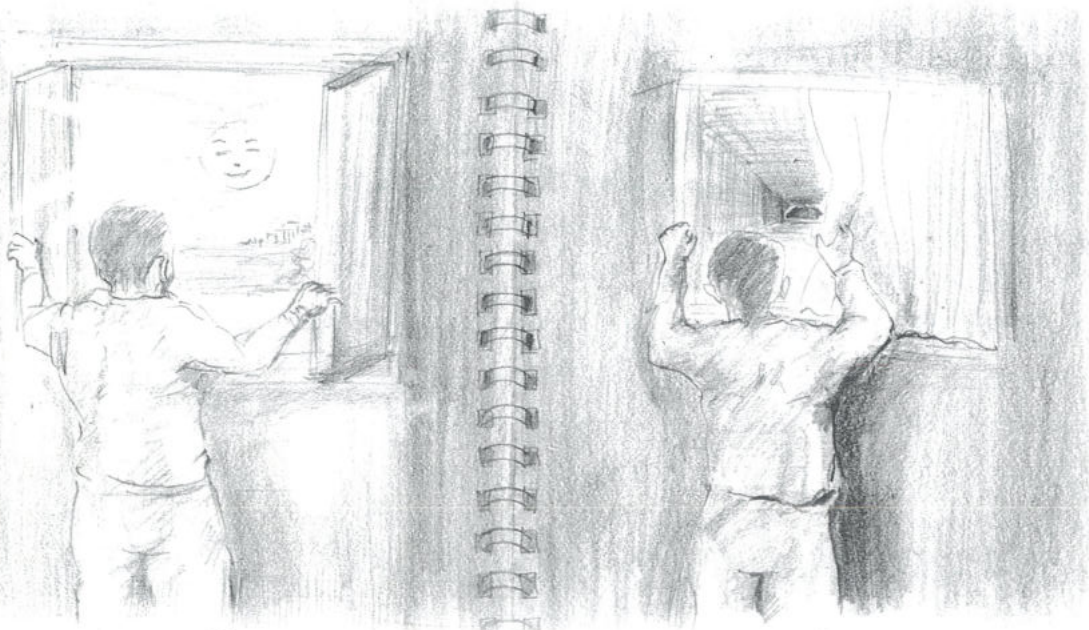
받았다. 중앙일보 '99지방자치 히트 행정 10선'에 제 1선으로 봉화군이 선정되었고, 작년에도 '지방자치 경영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봉화송이 축제는 국제적 축제로 알려졌고, 은어축제, 환상선 눈꽃열차, 봉성돼지 숯불축제 등 봉화의 깨끗한 자연과 문화재, 그리고 농·특산물을 주제로한 관광축제에 한해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다.

“변화와 도전 앞서가는 봉화”라는 군정구호로 21C 더욱 발전할 봉화군을 동문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만평

김기명(18회, 극동약국)



2001년을 열고...

2000년을 달고...





**박 호 일**

(10회, 환인제약(주) 대표이사)

의·약사 간의 직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약분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1963년 약사법 개정시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82년부터 1985년 사이 실시된 목포시에서의 시범사업은 계약연장에 대한 의약계의 합의도출 실패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1994년 약사법 개정시 1997년 7월부터 1999년 7월 사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그 시행시기를 명문화 하였으나, 1999년 3월 의약계의 국회청원에 의하여 1년 연기되었다.

1999년 6월에는 의약관련단체 및 학계, 언론계, 소비자, 시민단체 등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0년 1월에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약사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00년 7월에는 유예기간을 1달을 두고 의약분업이 정식으로 실시되기에 이

#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본 의약분업

보다 적극적이고 근원적으로 국내제약사들의 부양정책을 마련해야

르렀다.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2000년 12월 의약정 공동서명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그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사 간의 직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약분업의 근본이념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약회사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커다란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많은 약사들이 조제에 전념하다 보니 일반의약품의 매출이 크게 감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둘째) 현재 기초의학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외에는 대체조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사들의 기반을 이루는 대부분의 GENERIC들은 단기적으로는 반쯤대란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의 퇴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셋째) 처방약목록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외의 제품을 반복처방 및 조제할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해 의약사 공히 쌍벌죄로 처벌하게 됨으로 지역의사회에 대한 극심한 음성

적 로비행위가 자행되리라 예상되며, 처방약목록에 등재 실패한 우수한 의약품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 자명하다.

넷째) 저렴한 GENERIC들의 퇴출, 고가의 ORIGINAL들의 사용증가로 인한 보험재정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약가 인하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현재 이미 국내 제약사들의 경상이익은 거의 한계수준에 달하고 있다.

(참 조)

미국	제약사들의 평균 경상이익률	31-35%
유럽	"	25-30%
일본	"	10-20%
국내	"	3-5%

(2000년 11월 19일 데일리팜 기사 참조)

이러한 열악한 환경하에서 국내 제약사들은 자사제품들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며, 신제품개발을 통한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이미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우리나라 약업시장이 다국적 제약사들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어, 그들에 종속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근원적으로 국내제약사들의 부양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모교 11대 총장에 朴命洙 교수 선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회(이사장 : 김희수)는 12월 15일 모교 제11대 신임총장에 박명수 제2캠퍼스 부총장을 선임했다.

총장선임 절차는 교수협의회에서 선거를 통해 3명의 후보를 추천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2월 8일의 교수협의회 선거에 의해 3명의 후보(김성훈 교수 211표, 박명수 교수 206표, 임혁재 교수 93표)를 추천 받아 12월 15일 이사회에

서 최종적으로 박명수 교수를 선임하였다.

박명수 신임 총장은 1961년 모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가주대학(USC)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교수를 거쳐 1984년부터 모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한편 제10대(이종훈), 제11대(박명수) 총장의 이, 취임식은 2001년 2월 9일 거행된다.

## 승당 임영신 박사 23주기 추모강연회

‘승당의 인본주의 사상, 40년대 유엔외교 활약상’ 등 강연

승당 임영신 박사 기념사업회(회장 김원경 박사)는 10월 25일 팔래스호텔에서 고 승당 임영신 박사의 뜻을 기리는 23주기 추모강연회를 가졌다.

승당 임영신 박사의 탄신 101주년이 되는 금년 행사에서는 먼저 황운수(법학 12) 이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김원경 회장이 ‘승당 임영신 박사 생전의 인본주의사상’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한 후, 모교 이종훈(경제 10) 총장의 축사, 이인수 박사(고 이승만 대통령의 장남,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교문)의 ‘고 승당 임영

신 박사의 1940년대 유엔외교의 활약상’에 대한 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전 문교부 장관 민관식 박사를 비롯하여 전 모교 총장 이

석희 박사, 중앙대 총동창회 배용수 회장 등 약 3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하였다.







## 회원동정

### 12회 정기총회(6.4동기회)

- 일시 : 2000년 11월 11일
- 장소 : 서울시 약사실험회관
- 안건 : 1) 강육희 여동문회장  
에게 축하패 증정  
2) 임원선출  
· 회장 : 이호섭  
· 총무 : 노덕재



### 29회 정기총회

- 일시 : 2000년 12월 29일
- 장소 : 63빌딩 스카이뷰
- 안건 : 임원선출  
· 회장 : 이준  
· 총무 : 정진호  
· 부회장 : 유인석



### 4회 졸업 30주년 행사

- 일시 : 2000년 11월 18일
- 장소 : 강남 센트럴시티 5층(메이플룸)
- 안건 : 1) 동문회 장학기금 2백만원  
2) 김명웅 이사 동문회장 공로패 수여

### 제4차 회장단 회의

- 일시 : 2000년 11월 25일
- 장소 : 동문회관
- 안건 : 1) 동문회보 가을호(2호) 발송보고의 건  
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0년사 발간의 건

### 6회 정기 총회

- 일시 : 2000년 12월 2일
- 장소 : 이목촌
- 안건 : 임원선출  
· 회장 : 송수영  
· 총무 : 김광식



### 5회 정기총회

- 일시 : 2000년 12월 13일
- 장소 : 압구정동 "이지니"
- 안건 : 임원선출  
· 회장 : 김상오  
· 총무 : 이명환



## 여동문화(감국회)

- 일시 : 2000년 12월 6일
- 장소 : 세종호텔 금실
- 안건 : 1) 회갑연  
(박숙자, 김연희)  
2) 에이즈 강연회  
(강희운, 22회)



## 충북지부 정기 총회

- 일시 : 2000년 12월 24일
- 장소 : 명성반점
- 안건 : 임원선출
  - 회장 : 오규진(16회)
  - 총무 : 김인회(17회)

## 24회 졸업 20주년 "성년의 밤"

- 일시 : 2000년 12월 16일
- 장소 : 중앙대학교 교수 식당
- 안건 : 동문화 장학기금 3백만원 기증

## 제5차 회장단 회의

- 일시 : 2000년 12월 23일
- 장소 : 동문화관
- 안건 : 1) 동문화보 겨울호(제3호) 발간의 건  
2) 2000년을 보내며(송년회)

## 수원지부 정기 총회

- 일시 : 2000년 12월 27일
- 장소 : 브라운관광호텔
- 안건 : 임원선출
  - 회 장 : 강응모(18회)
  - 총 무 : 최충식(27회)
  - 부회장 : 김영후(26회)



## 회원동정

결혼

박종순(3회)이사 아들 결혼  
(12월 23일)

부임

도상학(2회) 이사  
안운식(3회) 동문  
정수길(10회) 이사 모친상



2000년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웅비의 날개를 펼칩니다. 약업계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21세기에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동문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 동문여러분들의 정성이 뭉치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큰일을 이루어 낼수 있을 것입니다.

## 회장단 회비(24만원)

합계 : 2,400,000원

정덕호(11회), 황공용(11회), 황문상(11회),  
 강옥희(12회), 이호섭(12회), 김종성(13회),  
 서국진(13회), 이규식(14회), 윤대봉(14회),  
 박석동(15회)

## 이사회비(12만원)

합계 : 1,080,000원

3회 : 성열호  
 4회 : 정재현, 김현용, 천흥기  
 8회 : 윤주섭  
 9회 : 조병일  
 13회 : 문재빈, 안병식  
 15회 : 조찬휘

## 모교의날 후원금

합계 : 500,000원

11회 동기회(정덕호) ..... 200,000만원  
 구주제약(김명섭) ..... 300,000만원

## 장 학 기 금

합계 : 5,100,000원

졸업 30주년 14회(이규식) ..... 2백만원  
 졸업 20주년 24회(김승재) ..... 3백만원  
 총복지부(오규진, 16회) ..... 100,000원

## 동 문 기 금

미국거주 김옥남(7회, 카이저병원) ..... 5백만원

## 컴퓨터구입비

청룡회 ..... 150만원

## 광 고 비

삼진제약 ..... 100만원

## 일반회비(2만원)

합계 : 5,480,000원

1회 : 이병숙, 윤용익, 안영희, 허필준, 박종욱, 김대수  
 2회 : 유성관, 박필일, 김좌상, 김양원, 황재수, 김길수  
 3회 : 남희우, 이정주, 현영철, 박동우  
 4회 : 이경석, 윤여빈, 홍범표, 신응섭, 박호원, 김덕배,  
 정진원  
 5회 : 문익수, 임맹순, 박승기, 강희복  
 6회 : 홍성호, 임은순, 배동수, 신현수, 이성호, 추의호,  
 오세민, 정정희, 유관열, 박승희, 이풍기, 권종악,  
 이태호, 김종구, 정진석  
 7회 : 권장원, 이상현, 박래식, 송정애, 박용준, 강엽섭,  
 유효희, 문장윤, 권오성, 전광량  
 8회 : 신현우, 허정자, 권태수, 주학철, 엄규중, 홍신표,

- 정재영, 정달수, 오창준, 손영복, 이성규, 임성빈,  
유재우, 임영숙, 박희철
- 9회 : 정석태, 박두환, 정보영, 이호식, 박종환, 권오성,  
이병호, 황자순, 김학진, 윤경자
- 10회 : 오창학, 심수일, 최영일, 방순환, 이중석, 이장열,  
조정자
- 11회 : 이해일, 이의공, 고승하, 신명승, 이석태, 남기택,  
최민재, 최옥출, 김승업, 강일성, 김재곤, 하마웅
- 12회 : 이재원, 오시화, 조정행, 이재덕, 이만오, 최덕구,  
염윤기, 신관호, 김일영, 우홍길, 이성우
- 13회 : 유용상, 유희동, 손찬규, 최승기, 김창식, 김신미,  
김진욱, 김인호, 이우식, 이종건, 박인재
- 14회 : 김원순, 유관희, 박기진, 김갑동, 현혜경, 현수홍,  
유효성, 채성기
- 15회 : 전홍근, 권영선, 황우철, 이상봉, 이경숙, 나인준,  
정현우, 박훈수
- 16회 : 박창호, 강명채, 최강식, 신규연, 한인희
- 17회 : 이동우, 정대진
- 18회 : 박인환, 박원래, 김화숙, 전광우
- 19회 : 최종숙, 김인기, 배영덕, 김상좌
- 20회 : 김영식, 유재성, 안연준, 박기배, 송열호, 지태현,  
윤춘수, 홍철수, 변성전, 구장림, 김영업, 이영희
- 21회 : 안병현, 여경남, 신종화, 이상준, 이진경
- 22회 : 한상훈, 김영희, 유대식, 양범석, 오황영, 홍옥경,  
강홍철, 박동우, 고석준
- 23회 : 나용태, 공인호, 안봉국,  
김순현, 조병학, 서운출,  
권경자, 박희용, 오향록,  
김형국

- 24회 : 문숙희, 임무호, 정혜선, 김상현, 김애영, 김창주,  
정상수, 이광섭
- 25회 : 김완기, 이명제, 김수종, 전경숙, 김미희, 이승정
- 26회 : 조항미, 하재일, 조필련, 김형남, 정교현, 황완규,  
박주돈, 김영후, 조병호
- 27회 : 김창식, 김명정, 박수길, 곽순자, 최호진, 유재수
- 28회 : 김경완, 이병천, 조한군, 오용식, 이석원, 오익준,  
고재호
- 29회 : 안성진, 강철선, 김은진, 이철
- 30회 : 조덕희, 서정봉, 이경숙, 김해옥, 윤기숙, 김광식,  
곽필신
- 31회 : 정문숙, 유문숙, 최민숙, 이민경, 박영란, 유영숙,  
오세정
- 32회 : 박혜란, 채영주, 안승희, 정현삼, 김재섭
- 33회 : 윤종배, 이미현, 송강준
- 34회 : 원성민, 진정하, 김사경, 이준
- 37회 : 박준경
- 40회 : 김주원
- 41회 : 이미경
- 43회 : 최정희
- < 기수 미기재 >  
김홍식, 김성배, 김영애, 방남규, 박지상, 김태일, 조경신,  
조경혜, 김철, 장동진, 이만형, 김병현, 조명숙, 이종훈
- ※ 황광남(13회) 일반회비 100,000만원

##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 중앙동문회



신사년.  
21세기가 밝았다. 온천지가 폭설로 눈이 부시다.  
더러운걸 다 지워버린 白雪로 마음이 白紙처럼 깨끗해진 듯 하다.  
금년 한해가 이렇게 계속됐으면 좋겠다.  
우리 同門들이, 우리 同門會가 아닌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좋겠다

황 공 용 (11회, 본보 편집인)

## 徐

동문회보 발간을 계기로 거의 전무하던 일반회비가 무려 548만원에 이르렀다. 마음 없음이 아니라 그리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지로 납부임을 아는 현실에서 여러 동문들의 마음 한구석의 죄(?)를 씻어준 회보의 위력이 반갑다.

## 明

정말 우연히 별난 제목에 책을 선전하는 신문광고를 보았다.

제목 : "내가 바보가 되면 친구가 모인다"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는다.  
지보다 못한 놈이라고 뽐내면서 말이다.  
내가 바보가 되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인다.  
그냥 이대로그가 좋으니까 더더욱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내가 바보가 되니 20년된 직원이 아직도 내곁에 있었고 '성공이란' 이란 작은 이름도 내곁에 있었다. 와우~ "

## 庸

주사제 제외가 분업의 패착이라는데 과연 그런가?  
차라리 그것만이었다면 또 어떻게 해 보겠지만, 실은 아예 근본부터 철저히 뒤흔들린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 개인도 단체도 예외가 있을수 없다.  
우리 동문회로부터 새삼 기초가 튼실한 모임이 될 것임을 약속하며 새해를 열자.

## 洙

개국가의 암울한 현실속에 올해는 어떤 것이 불안하게 만들까하는 이러저러한 고민이 쌓인 가운데 새 천년 첫해가 어김없이 다가왔다.  
정초부터 유난히 추운 동장군과 함께 끙끙얼어 붙던 모든 것들이 녹아 내리듯 스르르 지워졌으면 좋겠다.  
올 한해는 주변의 어려운 문제들이 원활하게 풀려 모두에게 웃음을 주고 받는 스트레스 없는 해가 되길 간절히 빌어본다.

### 〈편집위원장〉

황 공 용(11회)

### 〈편집위원〉

서 국 진(13회)  
김 기 명(18회)  
박 희 용(23회)  
김 정 수(26회)

### 동문여러분의 옥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 Gel type 위장약의 Broad Spectrum 선언 !!!



## 두가지 성분의 다중효과

### Guaiazulene

- 1. Reinforces blood flow through the mucous membranes**  
Cell metabolism에 필요한 oxygen과 nutrients를 운반하는 점막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켜 mucous membranes의 erosion을 막아준다.
- 2. Antiinflammatory action**  
염증부위에 직접 작용하여 위장관 내의 염증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 3. Antibacterial activity**  
위장관 질환의 주범인 Helicobacter pylori, Streptococcus faecalis, Enterobacter cloacae에 대한 항균작용이 있다.

### Dimethicone

1. Gel type 위장약 제제 중 최고의 Dimethicone 성분 함량을 가지고 있다.
2. 식도와 위점막의 Coating이 신속하고 지속적이어서 장시간의 위벽보호작용을 나타낸다.
3. 강력한 가스제거작용으로 복부팽만감이나 불쾌감, 더부룩함 등을 신속히 개선시킨다.
4. Guaiazulene의 병변부위로의 이행을 촉진시킨다.
5. Mucous membranes의 생리학적 활성을 증가시킨다.



■ 효능·효과 : 위염, 식도염, 소화불량, 가슴쓰림, 열공헤르니아, 복부팽만감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mailto:capa21@hananet.net)